

박태환, 세계 제패로 화려하게 부활

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400m 금메달

박태환은 8월8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예선 마지막 조에서 1분48초66으로 최하위에 그친 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에 이어 또 한 번의 예선 탈락은 그조차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

준비 과정부터 심하게 꼬였다.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에서 지난 3월 벗어난 박태환은 대한체육회의 반대로 막판까지 숨죽이며 올림픽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했다.

박태환이 리우행을 확정된 것은 대회 개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월이었다.

대한체육회가 끝까지 출전을 불허하면서 박태환은 훈련에만 집중해도 아까운 시간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와 국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작업에 쏟아야 했다. 물론 호주에서 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불안한 미래를 떠올리며 정상적으로 물살을 가르기란 쉽지 않았다.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실패 막을 내리자 그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다.

세계 수영계의 빠른 세대교체와 박태환의 나이가 수영 선수로서는 전성기가 지난 20대 후반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한 물 갔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박태환은 선수 생활 연장을 택했다. 4년 뒤 도쿄올림픽 출전이라는 속내도 살

며시 내비쳤다.

목욕이 구슬땀을 흘리던 그의 노력은 기록으로 입증됐다.

지난 10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자유형 400m에서는 3분43초68을 찍었다.

가브리엘 데타(이탈리아)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동메달을 딸 당시 3분43초49와 큰 차이가 없었다.

비록 정상급 선수들이 빠지기는 했지만 11월에는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100m·200m·400m·1500m 금메달을 쓸어 담기도 했다.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던 박태환은 마침내 고대했던 세계정상급으로 복귀했다.

박태환은 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제13회 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3분34초5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은 25m 레인에서 치르는 대회다.

레인의 길이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50m보다 절반이 짧다.

올림픽과 달리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FINA가 주관하는 세계대회로 인정받는다.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을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치는 박태환은 내년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롱코스)를 통해 진짜 경쟁자들과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



박태환은 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제13회 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3분34초5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KBO, 13일 2016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개최

KBO 리그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2016 타이거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오는 13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본상 시상에 앞서 KBO 리그 공식 파트너인 동아오츠카의 유소년야구 발전 후원 물품 전달식과 평소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수에게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이 수여된다.

이날 본 행사는 오후 5시10분부터 MBC TV와 인터넷 iMBC.com,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모바일 앱 '해요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황금장갑의 주인공 10명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취재 및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해설위원, 아나운서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를 통해 시상식 당일 무대 위에서 공개된다.

/김민근기자

UEFA 챔피언스리그, 아스날 조 1위로 16강 진출

아스날(잉글랜드)이 FC바젤(스위스)을 제압하고 조 1위로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 아스날은 7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의 샤프트 아폴파크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바젤을 4-1로 꺾었다.

승점 14(4승2무)가 된 아스날은 FC로스토프(러시아)와 비긴 파리생제르맹(프랑스·3승3무·승점 12)을 밀어내고 선두를 차지했다. 파리생제르맹은 2위 자격으로 16강행 티켓을 가져갔다.

페레스는 전반 8분과 16분 연속골을 터뜨렸다. 후반 2분에는 알렉시스 산체스의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해 세 번째 골까지 터뜨렸다. 아스날은 후반 8분 20살 신예 일렉스 이오비치의 득점을 묶어 일찌감치 대승을 확정했다.

C조의 FC바르셀로나(스페인)는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독일)를 4-0으로 완파했다. 이미 1위를 확보했던 바르셀로나는 승점을 15(5승1패)로 늘렸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는 셀틱(스코틀랜드)과 1-1로 비겼다. 승점 9(2승3무1패)가 되면서 조 2위로 토너먼트에 합류했다.

D조의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지난 대회 준우승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의 추격을 1-0으로 뿌리쳤다.

바이에른 뮌헨은 승점 12(4승2패)로 2위가 됐다. 예선 전승을 노리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승점 15·5승1패)는 조 1위에 만족해야 했다.

B조에서는 나폴리(이탈리아)와 벤피카(포르투갈)가 각각 승점 11(3승2무1패)와 승점 8(2승2무2패)로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근 기자

‘창립 10주년’ 전북장애인체육회, 기념행사·시상식 개최

특별 공로부문 전 사무처장 노점흥 처장 수상·선수공로 부문 육상 전민재 선수 수상



지난 7일 전주 오펜리스 컨벤션홀에서 장애인 체육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제10회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을 한해 장애인전국체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전북장애인체육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제10회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일 전주 오펜리스 컨벤션홀에서 장애인 체육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체육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다양한 내빈이 참석했다.

10주년을 맞이한 특별 공로부문에는 전 사무처장인 노점흥 처장이 수상했으며, 선수공로 부문에는 국내외 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로 전북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육상의 전민재 선수가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선수 부문에는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3관왕과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권상현 선수가 수상했으며, 최우수단체 부문에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연합회가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어 우수선수 부문은 임준범 선수 외 11명이 추가 수상했고 우수단체 부문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연합회가 수상했다.

이어 전라북도 장애인체육상의 공로, 감사, 봉사, 지도 부문에는 총 28명이 2016년 유공자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과 함께 그동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 단체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애인체육인들이 더욱 노력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공격수 절실한 J리그 요코하마, 정조국과 접촉

올해 K리그 클래식 득점왕에 오른 정조국(32·광주)이 일본 J리그 구단의 영입 레이더망에 들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7일 “스트라이커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정조국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조국 측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요코하마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사이토 미나부의 10골이 팀내 최다 득점인 만큼 올해 공격력 부진으로 고생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카이케 로드리게스는 올해 4골밖에 넣지 못했다. 특히 훈련에 자주 늦고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논란을 불렀다.

스포츠호치는 “카이케는 요코하마의 내년 구상에서 빠졌다”며 정조국에게 관심을 나타낸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